

복음 읽힘 / 땅끝까지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중



진홍용 (장로, 당회서기)

2010년 한 해를 보내는 끝자락에 서서 지나온 한 해를 돌이켜보면, 세계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지구촌 곳곳에는 전쟁과 테러의 소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철강가상으로 기근과 홍수, 지진과 화산폭발 등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졸이며 안타깝게 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과 위로가 된 것은 오직 말씀이었습니다. 매주일과 주간 예배와 집회 시에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은 복잡하고 문제 많은 현실,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하였고, 예수님만이 '대답'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심령에 깊이 각인하여 주었습니다(요 3:16). 특히, 3차에 걸쳐 진행된 창치기흥련 말씀은 진실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소통이며, 그것이 '기도'(막 9:29)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확실히 깨닫게 했습니다.

2011년 새해를 앞둔 시점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벧전 5:7). 지나온 우리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오직 복음을 붙들고, 믿음을 실천한다면 '나의 생각과 방법'과는 전혀 다른 '주님의 생각과 방법' 대로 모든 일을 '때에 맞추어' 이루실 것입니다(사 55:8). 물론 복음 안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삶에는 반드시 필박이 있습니다(요 16:2).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 믿음의 실천입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5대 목표를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신령한 예배와 천국일꾼 양성, 전도와 단기선교 그리고 이웃 사랑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다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사명을 위해서 우리 모두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롬 1:1)이 되어야 합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요 3:3)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당대 최고의 학식을 가진 경건한 종교지도자 니고데모는 거듭난 비밀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단순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아주 복잡하게 생각하며 살아왔던 니고데모에게 어린 아이들 수준의 영적 가르침이 오히려 어려웠던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혜 때문에 영적인 지혜에 무지했던 니고데모를 보면서 우리는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순한 믿음'. 이것이 죄인을 거듭나게 하며, '영적인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합니다(고전 2:2).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막 14:36). 믿음의 무릎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나의 뜻을 모두 버리고 또 좋은 언약의 보증을하신 예수 그리스도(히 7:22)와 함께 춤고 댄서 걷는 길에 걸기 원합니다. 2010년을 종성한 은혜로 마무리할 수 있게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또 어떤 감사의 제목들이 생겨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가오는 2011년을 맞이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 10:23-25). 아멘.

평생토록 잊지 못할 사역지

처음 선교지를 향해 나아갈 때에는 불교국가라는 사실에 인간적인 마음으로 두려웠다. '복음 전할 때 반가워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경찰에게 잡혀가면 어찌지?' 이런 수많은 생각들이 나를 지배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첫째 날 사역을 통해 주님은 그 모든 것이 헛된 고민과 생각이었다는 것을, 그저 주님의 능력만 붙들고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다. 사람을 두려워하던 나의 마음은 경찰 집인과 경찰 기숙사에서 복음을 전한 후 깨어졌다. 우리가 사역한 지역은 내가 평생토록 잊지 못할 사역지임에 분명하다. 사람들이 대부분 불교, 힌두교, 무슬림이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무늬만 이름으로만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어서 90% 이상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기도를 하였다. 우리 팀은 사역 내내 영혼 구원의 기쁨을 맛보았다. 준비한 것에 비해 부족한 나를 너무나 크게 사랑하시는 주님께 하루하루 감사하며 사역하였다. 비록 말은 잘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교감하며 서로를 축복하며 복음 안에서, 천왕 안에서 하나 되었던 모든 순간들을 기억할 때 내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났다. 선교지에서 주시는 은혜와 놀라운 사랑의 열매를 이끌어 가시는 그 벅찬 감격에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 없었던 잊지 못할 선교였다.

정나혜(대학부)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12월 14일(화) ~ 12월 23일(목)	18교구 4팀	박미연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12월 8일(수) ~ 12월 16일(목)	19교구 3팀	윤석구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12월 2일(목) ~ 12월 10일(금)	3교구 2팀	윤순규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들 2

‘성탄축하 찬양의 밤’(1·3 교육위원회)

성탄을 앞둔, 12월 23일 저녁은 조금 특별한 것 같다.

제1·3교육위원회 소속 학생들이 준비한 성탄축하의 밤 때문이다.

찬양의 밤을 위한 마지막 연습으로 분주한 그들을 만났다.

질문

1. ‘성탄축하 찬양의 밤’ 준비는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했나요?

2. 준비한 찬양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3.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

영아부

1. 늘 부족하지만 기도하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는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2. ‘만 아기가 낳네’, ‘들어봐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세 곡으로 마구간과 낚은 곳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이야기 형식으로 엮어 표현되는 찬양입니다.
3. 크리스마스를 매년 맞이하는 행사로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순종의 삶을 살아갔으면 합니다. 사랑합니다.

유아부

1. 전파된 신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은데, 귀한 찬양의 기쁨을 허락해 주셔서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더 묵상하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게 아낌없이 감사드립니다. 준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2. ‘천사 찬송하기’, 주께서 약속하신 언약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심을 보고, 우리 모든 악인이 성취함과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됨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아멘’하며, 팔복과 오메가로 처음과 나중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찬양입니다.
3. 유아부의 모든 어린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천국일꾼으로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유치부

1.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비록 어린 아이지만 그 마음에 심겨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부서를 자랑하는 찬양의 밤이 되길 오직 십자가 보혈 예수님만 자랑하는 찬양의 밤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2. 어린 아이부터 나이에 이르니 모두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며 오직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비록 성숙하지 못한 목소리이지만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영만 진실된 사랑이 듣는 이들에게 전달 되기를 소망합니다.
3. 유치부를 성실 수 있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만 사랑하며,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등1부

1. 주님 오신 성탄을 감사와 찬양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맞이 하고자 합니다. 토요일과 주일 오전, 오후 연습시간에 아아들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2. 예수님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들이 찬양을 통해 다시 한 번 믿게 하며, 크리스마스가 단지 듣는 날이 아니라 감사하는 날임을 찬양을 통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3. 유치부를 성실 수 있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만 사랑하며,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등2부

1.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 어둠 속에 오셔서 나타내신 거룩한 영광을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과정과 당일에 이 세상과 교회와 개인들 속에 있는 어둠이 예수님의 메시지로 전환된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2. ‘오직 목자들로 주를 바라’는 찬양은 유아가 모두 깨어서 탄생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내용이며, ‘성탄의 밤’은 주님이 탄생하신 밤을 아름답게 묘사하는 곡입니다.

3. 행사를 위해 소하고는 모든 지휘자, 반주자, 찬양대원들이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고 청중들도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등부

1. 찬양의 밤을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을 기쁨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경배하며 찬양드립니다.
2.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시려 오심이라. 이소라에 왕의 탄생을 모두 기뻐하며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3. 중등부가 찬양의 밤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이 행사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의 밤을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부

1. 솔직히 분주한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내뻗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찬양을 준비하며 예수님이 함께 아심을 나누어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2. ‘기쁘다 구주 오셨네’와 ‘참 반가운 성도여’ 두 곡을 찬양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는 전체 합창이 시작되기 전에 드럼팀이 솔로로 연주한 후 전체 찬양을 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는 여성 듀엣이 1절을 시작하고 후렴에 전체 찬양이 들어가며 다함께 4절 찬양을 부릅니다.
3. ‘사랑부’라는 이름처럼 사랑이 넘치는 부서입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한 지체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지만 성령이 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서로 찬양드림이 계속되는 부서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예배다부

1. 청년들이 수확찬양을 준비해서입니다. 공부하는 청년, 운동하



- 는 청년, 직장에 다니는 청년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는 마음만이 아닌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2.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얼마만큼 낮아지셨으며, 그 낮아지심이 우리에게 매우 귀한 축복임을 나누기 위해 ‘그 어린 주 예수’를 찬양하고, 그 의미를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찬양을 맞이할 수 있다는 뜻으로 ‘노엘’을 찬양하며, 예수님 탄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신 후 부활, 승천, 재림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계획을 선포하기 위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양하게 됩니다.’
3. 청장년예인들의 대와 수련인 수확과 전교인들에게 보급되어 장예인, 비장예인들이 서로 자유롭게 대하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

두어켜보면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로 살아왔음을 깨닫는다. 사자가고 있는 그 순간에는 느끼지 못하다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 때에 주시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나중이 되어서야 깨닫게 되는지, 너무나도 이르러서 나를 방전하게 된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얼마나 기쁘는지. 그 감사와 기쁨을 나의 삶 가운데 항상 느끼기 원한다는 것이 나의 기도이다.

늘 내일의 내가 살아서, 내 내가 살아서 그 한일은 은혜를 거저 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 “이제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말씀과는 달리 내에게는 그리스도인이 전부가 아니라 세상의 유한한 것들과 보이는 것들이 전부 되어 주님이 아닌 내가 살아간다. 사실로는 ‘주님이 나의 전부이고, 내 내일이 그리스도라고 사나이다’라는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삶은 내가 살아간다. 온전치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줄지 못하고 있다. 모든 주님이 주님 앞에 있고 그 주님께 내게 인음을 잊지 않기 원한다. 삶이 내 뜻대로 될 것 같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원하는 바와 같아도 될 것 같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나의 삶은 그렇지

않음을 알기 원한다. 온전치 찬양 받으실 이도 주님이시며, 영광 받으실 이도 주님이심을 기억하기 원한다. 정말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 세상에 어떻게 인하시기로는 주님의 은혜가 늘 기대된다. 가능하지 못한 은혜와 사랑까지 못한 방법으로 나의 삶 가운데 인하시는 주님.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른다.

“하늘에 찬송이 울리는 그 날, 천사들 나팔이 울리는 그 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나의 삶 가운데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기 원한다. 그 신자들의 은혜가 나의 전부가 되기 원한다. 인하시고 원하신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 은혜로 살아야 하는 주님을 기억하며, 그 귀한 약속 가운데 늘 깨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한다. “주님,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길 원합니다. 순결과 의무로 정어든 인물이 아니라 주님 주신 그 은혜를 삶 속에서 기억하며, 내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온전치 그 신자가 안에 주님과 함께 거하며 살아가지 원합니다. 나의 모든 기 되신 주님을 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나고 싶어서 나에게 주실 시간 가운데 인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앞으로의 날들을 더욱 기대한다.

2010년 은퇴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색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리하나니라”(골 3:14)

안수집사 김종만(378) 박광석(3411) 송순호(94-502) 이동경(90-159) 장금수(97-144)
허명호(84-1247)

(6명)

권사 김경자(84-807) 김군자(90-622) 김숙희(5019) 김순은(84-547) 김정림(88-409)
김정희(4789) 김주분(4140) 명정옥(247) 민병란(80-295) 박순옥(3006)
박신준(2857) 박영순(89-138) 박정구(2934) 백옥심(79-112) 서정자(94-624)
서화자(4171) 신조자(80-683) 안정덕(2189) 안경자(2282) 양명희(404)
양성자(2851) 양영자(1958) 황유남(85-786) 유병순(1253) 윤효남(99-247)
이말분(1392) 이미재(4455) 이영형(80-634) 이자경(87-707) 이현숙(1931)
이희자(3811) 정영혜(89-547) 정정자(85-652) 조운원(2744) 최숙진(3696)
최정자(91-799) 함명연(99-1155) 홍기환(874) 홍복기(84-1090) 홍양래(573)

(4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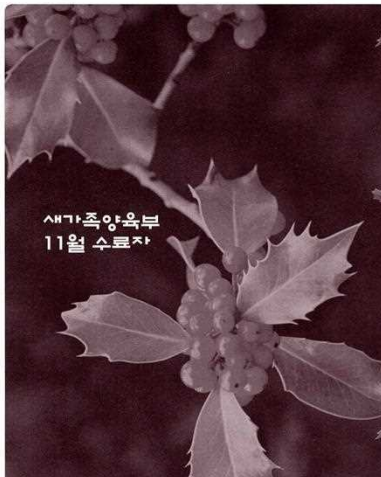
은퇴자 시상 12월 19일(다음 주일), 찬양예배 시

찬양예배 30분 전에 여행 연습이 있으므로 은퇴 시상자는 본당 앞 지정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육과정	교구	인도자
1363	정술기	고등부	11	최호일
1364	서원영	대학부	20	서아영
1365	전현숙	양육반	4	정태동
1366	탁다빈	대학부	11	이다정
1367	홍수희	양육반	2	윤인숙
1368	임한샘	대학부	17	이지혜
1369	조인성	대학부	12	유상태
1370	박정원	초등부	7	최지은
1371	서철민	사망부	8	최지은
1372	최형욱	초등1부	10	김정연
1373	최형원	유아부	10	김정연
1374	양승진	예배다부	25	박인기
1375	조희정	대학부	11	조진정
1376	김지혜	양육반	4	김숙옥
1377	신동심	예배다부	25	박인기
1378	박말출	양육반	4	김숙옥
1379	박재원	유아부	4	김숙옥
1380	홍유미	청년1부	6	이화경
1381	이경노	양육반	14	이미주
1382	김진구	대학부	4	김재현
1383	허진영	청년1부	20	정혜실
1384	이광희	양육반	3	
1385	김한나	대학부	12	
1386	정경	양육반	6	
1387	이세라	양육반	3	
1388	신미자	양육반	13	최명희
1389	서주원	양육반	21	이은혜
1390	박은근	양육반	17	강보은
1391	이승태	양육반	10	홍신기
1392	강수영	중등부	6	주소영
1393	이원주	양육반	1	
1394	홍은진	양육반	21	신정애
1395	김은정	양육반	16	홍미화
1396	김유진	중등부	7	최수민
1397	윤재연	청년1부	13	백재욱
1398	백옥심	양육반	21	김영하
1399	손승심	대학부	22	이효룡
1400	김미리	대학부	19	박서정

총현교회와
한가족이
되기
를
원하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서로
오시기
바랍니다.



**새가족양육부
11월 수료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직장 관계로 친연이가 사는 곳으로 이사를 오면서 자
연스럽게 언니가 다니는 교회로 나오게 되었다. 이
친연을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찬양을 할 때마다 마
음의 평안을 느끼고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 생활의 활
력을 가진다. 세상과의 갈등 속에서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믿음을 찾으며 있다. (이명연)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
다.” 모태신앙이었지만 세상의 것에 집착하며 살아왔
다. 이런 나를 주님은 이끄셨고, 양육과정들 통해 예
수님의 깊은 사랑을 알게 되었다. 어느 교회에서도 느
끼지 못한 교육을 통해 살아 계신 예수님을 알게 되
었다. 신앙인으로서 거듭난 사람이 되고 싶다. 두 딸
의 얼마였지만 큰 딸은 4년 전 우울증으로 먼저 하늘
나라로 떠났고, 둘째딸 언니를 잃은 아픔으로 생긴
우울증으로 인한 거식증에 시달리고 있다. 기도를 부
탁드린다. (최예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새롭게 알게 된 것
은 예수님은 인간들을 죽음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
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
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신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오신다는 것이다. 성경
속의 모든 말씀은 믿어지지 못 이해할 수도 없지만 사
실로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 (김선화)

양상 종교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나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교제
하고 있던 여자 친구의 강력한 이끌음으로 총현교회에
오게 되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분이시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이
큰 감동으로 다가왔고, 감사한 마음이 든다. (김경태)

나는 죄인임을 알 수 있었다. 예수님은 나 자신을 변
화시키시는 분이시며, 나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하신 분

이다. 세상 것에 치우치지 않는 마음과 기도로 기
쁠 때나 슬플 때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
을 느끼겠다. (김영영)

저는 교회에 왔을 때 선생님께서 아기가 많은 마음으로
하나씩 배워 가면 된다고 해 주셔서 부담스럽지 않게
교회를 다닐 수 있었다. 교회에 나오면서 나는 많이
변했다. 먼저 입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와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같이 있는 선생님들과 함께 매일 반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6개월 동
안 성경공부를 꾸준히 하여 성경책에 낯이 없어 구절이
나오면 왠지 부끄러웠다. 앞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것이다. (박성혜)

교회에 나오며 기쁨이 왔고 마음이 편해졌다. 예수님은
중요인 분이다. 계속 열심히 믿을 것이다. 생활의 열매
없이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도록 기도드린다. (김영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끝까지 사랑하사 구원해 주
신 구원의 확신과 나의 모든 것은 주님께 속하였으므
로 주를 위해 살아야 함을 알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기 위해서 십자가
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처
음 사랑을 회복해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죽음에서
살리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라도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한다. 늘 찬양과 기도로 주님의 모든 아들의 영혼
구원에 힘쓰며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 위해 살겠
다. (여복경)

생활의 고통과 육신의 피로와 정신적으로 매달려버린
현실 속에서 그나마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도와 총현교
회를 만나게 되어 삶의 무게에서 조금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
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살아 어찌 되
었든 되도록 주님을 지키고 싶다. 그리고 부모님, 친
구, 불행한 사람, 병들어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다. (서재홍)

교회 목록

신명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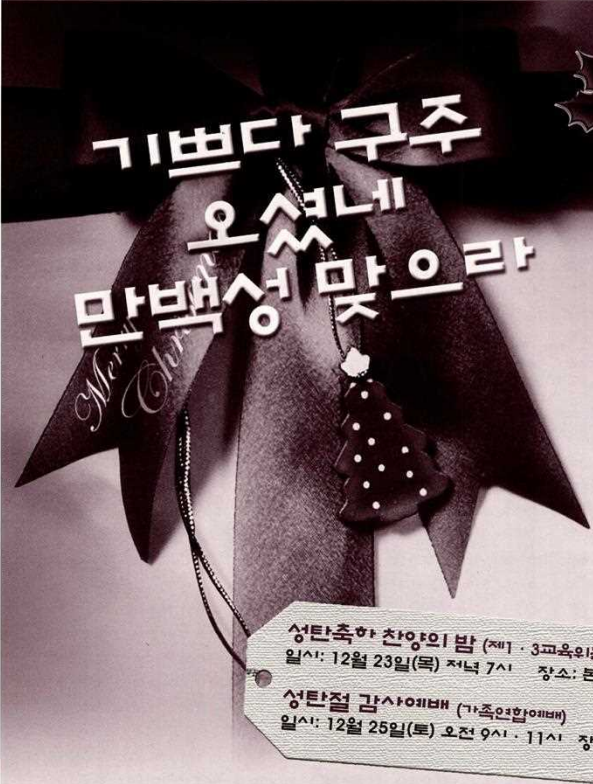
주간충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진홍용 편집: 양재웅



2010년 크리스마스 메시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성육신 (요한복음 1:14~18)

오늘 크리스마스 메시지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4)로 시작됩니다. 그 말씀, 즉 삼위 하나님 중의 2위이신 영원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인간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성육신 하셨다는 이 엄청난 사건은 진실로 놀라운 기적입니다(2:11).

영원한 관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영원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현현입니다(요 1:18).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입니다(요 4:24). 쉽게 말해서 무한한 것을 볼 수 없는 유한한 몸으로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성육신은 신자들이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는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갈 수 없으며(요 14:6),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오는 모든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요 3:16).

성육신은 하나님의 현현

성육신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실체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영원히 계실 것입니다. 그는 살아 계시고 설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는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하십니다. 그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셨지만 성육신을 통하여 스스로 되 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죄 없는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완전한 구주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고통과 죽음을 당하기 위하여 인간이 되어야 했고,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죽어야 하는 하나님이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느 신자들과 완전히 다르고, 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성육신의 목적

성육신의 목적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 값을 치르고 은혜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함으로 죄의 노예인 인류를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유약을 위해서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 땅에서 즐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구원을 주기 위해서 보이는 행태의 인간이 되어 하늘로부터 땅에 오셨습니까(요 1:12~13). 이것은 오래 전에 예언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났으며 하나님의 선물로 오셨습니다(사 9:6~7).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아담과 하와 시대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모든 방법으로 약속되었습니다(요 1:16~17).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깊이 생각할 때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의 성육신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노래한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시기 바랍니다(눅 2:14). 아멘.

성탄축하 찬양의 밤 (제1·3교육위원회 주관)
일시: 12월 23일(목) 저녁 7시 장소: 본당

성탄절 감사예배 (가족연합예배)
일시: 12월 25일(토) 오전 9시·11시 장소: 본당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눅 2:10). 메리 크리스마스! 큰 기쁨의 복된 소식이 죄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음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눅 2:11). 구주 탄생의 기쁨과 최고의 정성을 담아 이번 주 토요일(25일)에 성탄절 감사예배로 나아오십시오. 2000년 전, 별을 따라 죽음의 여행을 감수한 동방박사들과 베들레헴 들판의 목자들처럼 말굽우로 나아가 아기 예수께 최고의 경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예배 시에 필요한 말씀과 찬양곡을 담은 책자를 특별히 제작하였습니다. 교회학교의 자체 예배는 없으며, 1부(9:00) 또는 2부(11:00) 중 선택하여 온 가족과 함께 감사와 경배의 자리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23일(목)에는 교회학교(제1·3교육위원회)에서 준비한 성탄축하 찬양의 밤이 열리으니, 모두 나오셔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다음 주일(26일) 찬양예배 시, 제6차 학습·세례식 및 공동의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골 2:12). 2010년의 마지막 학습·세례식이 다음 주일 찬양예배 시에 있으며, 유아세례식은 갈릴리(출)오후 3시에서 있습니다. 또한 찬양예배 후에는 곧바로 공동의회가 있으니, 세례를 받으신 등록교인들은 모두 참석바랍니다.

THE RAPTURE: MYSTERY OF THE RESURRECTION

*⁽⁵¹⁾Behold, I tell you a mystery; we will not all sleep, but we will all be changed,
⁽⁵²⁾in a moment, in the twinkling of an eye, at the last trumpet; for the trumpet will sound,
and the dead will be raised imperishable, and we will be changed.
(1 Corinthians 15:51-52)*

The rapture of the church described by Paul in today's Bible verses was a mystery unknown in the Old Testament, but now revealed, "Behold, I tell you a mystery; we will not all sleep, but we will all be changed, in a moment, in the twinkling of an eye, at the last trumpet; for the trumpet will sound, and the dead will be raised imperishable, and we will be changed"(1 Cor. 15:51-52). I've got to tell you that the phrase "at the last trumpet" really gets me excited. Personally, I love the sound of the trumpet; it's a heavenly sound to my ears. Not too long ago I learned how to play this instrument, so that now every time I blow into it I hear these incredibly beautiful noises. The last sound we're going to hear before our resurrection is the sound of the trumpet. Our resurrection is totally involved, as I've always told you, in Jesus Christ. Jesus died, resurrected, and is coming again. Paul clearly declared, "For I delivered to you as of first importance what I also received, that Christ died for our sins according to the Scriptures, and that He was buried, and that He was raised on the third day according to the Scriptures" (1 Cor. 15:3-4). Jesus also declared, "Do not let your heart be troubled; believe in God, believe also in Me. In My Father's house are many dwelling places; if it were not so, I would have told you; for I go to prepare a place for you. If I go and prepare a place for you, I will come again and receive you to Myself, that where I am, there you may be also"(Jn. 14:1-3). We shouldn't take the wonderful revelation of the rapture lightly. I know a lot of Christians don't think about this, but it is a mistake because a firm belief in the resurrection and a solid hope for the future gives us incentive for loving and serving Christ today. What does the rapture mean to you?

The rapture means that you will be resurrected. Paul wrote about the doctrine of the resurrection throughout today's chapter, concluding it with the Christian's victory through Christ. He says, "For as in Adam all die, so also in Christ all will be made alive. But each in his own order: Christ the first fruits, after that those who are Christ's at His coming"(1 Cor. 15:22-23). At the last trumpet, those believers who are still alive on earth will be changed in an instant, and those believers whose dead bodies are still on earth will be changed in an instant, and all will be with Christ. Rapture time is all about getting together with Jesus. 1 Thessalonians 4:16-18 says, "For the Lord Himself will descend from heaven with a shout, with the voice of the archangel and with the trumpet of God, and the dead in Christ will rise first. Then we who are alive and remain will be caught up together with them in the clouds to meet the Lord in the air, and so we shall always be with the Lord. Therefore comfort one another with these words." When the rapture comes, every dead Christian body on earth will be resurrected first, and then those who are still alive. The end of the world is going to be an amazingly

wonderful time for Christians!

The rapture means that you will be fully recovered. In the magnetic moment of heavenly change believers will be like Jesus Christ, "See how great a love the Father has bestowed on us, that we would be called children of God; and such we are. For this reason the world does not know us, because it did not know Him. Beloved, now we are children of God, and it has not appeared as yet what we will be. We know that when He appears, we will be like Him, because we will see Him just as He is"(1 Jn. 3:1-2). Your rapture resurrection will recover what Adam and Eve lost. You will have a perfect body unhindered by pain. You will have a perfect mind no longer affected by the Fall. You will have no more sickness, no more sorrow, and never experience sin again, "and He will wipe away every tear from their eyes; and there will no longer be any death; there will no longer be any mourning, or crying, or pain; the first things have passed away"(Rev. 21:4). All believers will experience total victory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The creation will glory in what God has done for His people, "For we know that the whole creation groans and suffers the pains of childbirth together until now. And not only this, but also we ourselves, having the first fruits of the Spirit, even we ourselves groan within ourselves, waiting eagerly for our adoption as sons, the redemption of our body"(Rom. 8:22-23). The culmination of your position as God's child is the resurrection state. At the rapture, all believers will be glorified and praise the Lord in glory.

The rapture means that you will be rewarded. Jesus said, "Behold, I am coming quickly, and My reward is with Me, to render to every man according to what he has done"(Rev. 22:12). Salvation is not of works but rewards are! What have you done lately? One Christian reward is eternal life, "Blessed is a man who perseveres under trial; for once he has been approved, he will receive the crown of life which the Lord has promised to those who love Him"(Jam. 1:12). Another reward offered Christians is for loving the coming of Christ, "in the future there is laid up for me the crown of righteousness, which the Lord, the righteous Judge, will award to me on that day; and not only to me, but also to all who have loved His appearing"(2 Tim. 4:8). At the rapture, Christ will bring His rewards with Him. Faithful service to our Lord, overcoming temptation, and being steadfast will be rewarded. Let's live in anticipation of that coming day!

My dear friends, today is the last Sunday of 2010. Victory is guaranteed to every believer. Are you excited? Are you ready for the rapture? Please trust Christ as your personal Savior. What kinds of rewards are awaiting you when Jesus returns? Praise the Lord Jesus who loves you and me. Let's glorify Him now and forever. Amen.✠

휴거, 부활의 신비

⁽⁵¹⁾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⁵²⁾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고린도전서 15:51~52)



김성판 목사

오늘 성경 본문에서 바울이 묘사하고 있는 휴거는 구약성경에는 감추어진 신비였지만, 이제 드러났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쉼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고전 15:51~52). “마지막 나팔에”라는 문구는 저를 흥분시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나팔 소리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는 마치 천상의 소리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악기 연주하는 방법을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매시간 매우 아름다운 이 소리를 내기 위해서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기 전 들어야 할 마지막 소리는 나팔 소리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와 완벽하게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재림.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령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고전 15:3~4).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없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 14:1~3). 우리는 밝히 드러나는 휴거의 놀라운 계시를 간파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휴거에 관심이 없는 많은 그리스도인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미래에 대한 견고한 소망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부활

휴거는 여러분이 다시 살아날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성도의 승리와 함께 있을 부활의 교리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고전 15:22~23)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살아 있는 성도들과 이미 죽은 성도들은 차례대로 순식간에 변화할 것이고,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휴거의 때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로 모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16~18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합니다. 휴거가 일어날 때 죽은 모든 성도가 첫 번째로 부활할 것이고, 그 다음은 살아 있는 성도들입니다. 세상의 끝은 성도들을 위한 엄청난 놀라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완전한 회복

휴거는 여러분이 완전히 회복될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변화가 있는 놀라운 순간에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요일 3:1~2). 여러분의 휴거 시에 있을 부활은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완전한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원죄의 영향에서 벗어나 완전한 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의 아픔, 슬픔에 놓이지 않으며 다시는 범죄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계 21:4). 모든 성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창조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하신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롬 8:22~23).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점은 부활의 상태입니다. 휴거 때 모든 성도는 완전해질 것이며 영광 안에서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늘의 상

휴거는 여러분이 상을 받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계 22:12)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일함으로써 얻을 수 없지만 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무엇을 했습니까? 각 성도가 받은 상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다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약 1:12). 성도들이 받은 또 다른 상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딤후 4:8). 휴거 때에, 그리스도의 상을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율복을 이기고 범함없이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예배한 성도는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2010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승리는 모든 성도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흥분이 되십니까? 여러분은 휴거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반드시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조로 영접하시고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은 어떤 상을 받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을 찬양하십시오. 지금,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메시아의 죽음 68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

제단을 받았고, 이후 로마총독 빌라도에게 끌려가 최종 재판을 받은 후 십자가형을 언도 받았다. 그리고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 온 세상의 구주로 오신 메시아가 죽은 것이다. 이것은 진실로 역설적인 사건이다. 어떻게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가 죽을 수 있는가!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사실이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령의 능으로 살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사 제마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상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고전 15:3~8).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인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는 것이다(행 2:22~24).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했음에도 메시아를 죽이는 데 한 마음이 되었고, 자신들의 원수라고 할 수 있는 로마정권과 손을 맞잡고 예수님을 죽였다.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되어 예수님을 고난과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이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렸다(눅 22:31,34). 그러나 메시아가 당한 고난과 죽

음은 생명을 위한 유일한 통로가 되었다(요 20:31). 십자가에서 찢기고 흘리신 예수님의 삶과 피는 구원을 위한 새 언약이 되었다(막 14:22; 마 26:26~28; 눅 22:19~20). 모든 인간은 죄인이었다. 그러나 갈보리 십자가를 통한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은총의 역사가 일어났 것이다. 이 모든 은총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결과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과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 예수님을 거부할 때 죄인이 당할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당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참시도 믿어서는 안 된다. 매순간 세상을 바라보려는 죄의 습성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막 9:2,7).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히 고민하며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깨어(막 14:34) 기도해야 한다. “조금 나아가자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막 14:35~36). 간절히 기도하시면 예수님을 도왔던 천사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눅 22: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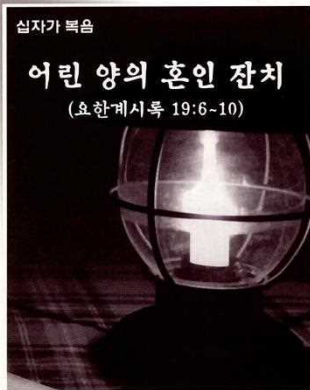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딤후 1:15).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의 길을 걷는 ‘남은 자’(remnant, cf. 사 10:22; 렘 23:3~4)의 삶은 분명 고통스럽고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 그러나 “영화로운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찬 148장)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길만이 진짜다. 아멘.

* 매주 월요일새벽기도회(새벽 440분에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요한계시록 19:6~10)



요한계시록 18장은 큰 성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이어진 19장은 큰 음녀 바벨론의 멸망을 감사하는 찬송의 소리로 시작된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계 19:1). 여기서 ‘할렐루야’(Hallelujah)는 히브리어로서 ‘찬양하라’(히, 할렐)와 ‘여호와’(하, 야)의 복합어, 즉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이다. 이 말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요한계시록 19장에 단 4번 사용되었을 뿐이다(시편을 비롯한 다른 성경에 보편적으로 사용된 ‘할렐루야’는 ‘Praise the Lord’이다). ‘할렐루야’라는 찬송의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던 주제는 ‘은총’이었다. 성도의 원수였던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참되고 의로운 심판으로 인해 온 우주는 찬된 찬양의 소리 ‘할렐루야’를 연속으로 외쳤던 것이다(계 19:2~4).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 ‘할렐루야’가 선포된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 소리와도 같고 큰 우렛소리과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계 19:6). 이 찬송은 바벨론에 심판이 임한 것으로 인한 찬송이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기 때문에 부르는 찬송이다. 찬양의 혼인 잔치를 기대하는 기쁨으로 찬미한 찬송에 대해 세례요한도 “산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찬미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요 3:29~30)고 고백하였고,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엡 5:25,27,30~32)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밝혔다.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시작된다.

● 신부의 준비와 그의 선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

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계 19:7). 신랑을 맞이할 신부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안타깝게도 신부를 상징하는 우리는 준비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전혀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혼인 잔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기 때문이다(엡 5:25). 따라서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준비는 끝난다. 혼인 잔치를 위한 신부의 준비는 예수님이 선물로 주신 ‘보혈’이다. “오직 죄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벧전 1:19).

● 신부와 그녀의 옷

혼인 잔치를 위해서 신부는 예복을 입어야 한다. 그러나 마땅한 옷이 우리에게 는 없다. 우리에게는 ‘더러운 옷’(사 64:6)뿐이다. 결국 신부에게 필요한 옷도 어린 양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한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리라”(계 19:8). 이 옷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 의의 옷이다(골 3:4; 엡 2:8,10).

● 결혼식 그리고 손님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계 19:9). 이제 혼인 잔치는 시작되고 초대받은 손님들은 기쁨으로 함께 할 것이다(요 3:29). 이 놀라운 혼인 잔치는 예수님에 의해서 이미 예고되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율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니라”(눅 22:16). 혼인 잔치에 대한 예수님의 이 약속에 대해 마태복음도 기록하였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시작되니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마 26:29). 주님과 하나가 되는 기쁨의 잔치가 이제 곧 열릴 것이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신랑을 맞이할 신부 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기대와 기쁨으로 찬미한가? 아니면 아무런 생각 없이 세상 일로 분주한가? 우리는 예수님이 신랑이고, 혼인 잔치가 곧 열릴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영원을 위한 혼인 잔치에 초대받았음에도 여전히 ‘내 것’만을 고집하고 있다. 혼인 잔치의 준비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모두 하겠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하며 계산하고 있다.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하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불필요한 시간과 힘을 낭비하지 말자. 어린 양의 보혈로 준비된 혼인 잔치에 합당한 세마포 옷은 회개뿐이다.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많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망 끝까지 / 복음칼럼

예수님, 예수님

늦은 이국 땅, 여행 목적이 아닌 선교를 위해 그 땅에 처음 발을 디뎠다. 늦은 밤, 공항 주변에서 택시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1시간을 기다렸다. 택시가 하기에 무색할 정도의 세 발 오토바이, 일명 쪽박이를 타고 속으로 이동했다. 탑승 인물은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며 감사했다. 이렇게 첫 사역이 시작되었다. 매일 오전 경건회를 통해 수많은 기도를 주님께 드렸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조차 모르는 이들에게 주의 이름을 전할 테니 부디 인도해 주세요." 하루가 지나고 이들이 지나도 다른 팀원들은 눈물을 흘리며 성령충만함을 주님께 감사드렸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부끄럽지만 주님께서 은혜 주심을 느낄 수 없었다. 나의 일출에서는 하루하루 거짓 증거만 나왔다.

3일째 되는 날, 작은 마을에서 주님의 기다리심을 보았다. 축호전도를 위해 어느 시골 가정에 들어갔다. 10세쯤 되는 어린이가 내뽀개쳐 있듯이 방 구석에 누워 알고 있었다. 말라리아였다. 순간, 나도 모르게 "예수님, 예수님, 저 아이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말과 함께 한없이 눈물이 났다.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많이 부른 적이 없었다. 말라리아 약이 있었지만 쓸 수가 없었다. 아니, 주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 어린 아이의 육체가 아닌 영혼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같이 계신 권사님과 환자를 위해 기도를 드리고 나왔다. 주님께서는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계신다. 세상의 것과 신앙의 가장자리에서 맴돌고 있던 나를 지켜보시다가 드디어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다. 그 순간 내 인생의 새로운 길과 해결점이 보였다. 주님께서는 절대로 그냥 지나치시지 않으신다. 기다림 속에 주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이다.

성대진(집사, 17교구)

내가 하는 것이 아님을

몽골 선교는 이번이 두 번째이다. 다소 느긋한 마음으로 선교 훈련에 임했다. 하지만 사탄은 그런 나를 순순히 두지 않았다. 남편의 건강검진 결과 갑자기 폐에 이상이 있다며 다시 검사를 하라는 것이었다. 우리는 걱정을 넘어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순간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었다. 이미 나의 마음에는 선교에 대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주님은 남편과 나를 믿음으로 세워주시기 위하여 잠시 깊은 수렁에 빠졌던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셨다. 주님은 다시금 남편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나 또한 선교에 임하게 하셨다. 이번처럼 내가 선교를 다시 평안히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싶었다. 참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깨닫게 되었다.

조영란(집사, 15교구)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12월 14일(화) ~ 12월 23일(목)	18교구 4팀	박미현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2개 팀)

기 간	팀	팀 장
12월 21일(화) ~ 12월 29일(수)	15교구 4팀	서진원
12월 23일(목) ~ 12월 31일(금)	22교구 3팀	김종녀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12월 8일(수) ~ 12월 16일(목)	19교구 3팀	윤석구

복음 칼럼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는 집사회

2011년 새해를 앞두고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오직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 된 교회의 안수집사로 기를 부여 주시고 교회의 이곳저곳에서 섬기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놀랍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골 1:25). 안수집사들의 신앙공동체인 '집사회'를 통해서 2011년 총현교회와 주님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도록 더욱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집사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의 전통과 경험을 버리고 거둔다기 위해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집사회 조직을 기존의 4개 지회(1개 지회 당 6개 교구)에서 8개 지회(1개 지회 당 3개 교구)로 세분화했습니다. 휴직자를 제외한 현재 시무 중인 안수집사 총원이 331명(2010.12.13. 기준)입니다. 따라서 이번 8개 지회로 세분화함으로써 더욱 긴밀하게 안수집사들이 기도하며, 복음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회권성도 교구 순으로 하여 동일 지역 및 근처 지역의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집사회 일원조직은 대추 축소하여 꼭 필요한 임역원들이 섬김과 기도가 필요한 집사님을 내치는 성도들을 즉각적으로 물릴 수 있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구제와 봉사라는 집사 본연의 사역(행 6:1~3)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서 그동안 주일에 진행되었던 회의를 비롯한 전체 모임을 제한하여 주일 하루만으로는 교회의 구성구성을 돌아보며 성도들과 교회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자원봉사부와 협력하여 총현기회원 및 동

산 그리고 함양총현원들을 비롯한 봉사활동이 필요한 곳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천재지변으로 인해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집사회가 달려가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엡 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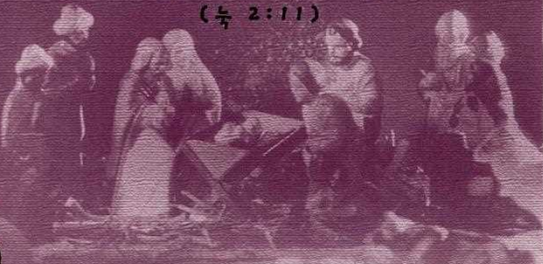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기도의 사명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막 9:29). 현재 24시간 연속기도를 위해서 권사님 및 장로님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기도의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더욱 돌아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본노와 다투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딤후 2:8). 또한 월요새벽기도회 후에 갈릴릴회에서 갖고 있는 기도회와 금요찬양집회 후 지회별로 진행되고 있는 기도회를 통해서 교회뿐만 아니라 총현기회원과 동산에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힘을 쏟겠습니다.

2011년 집사회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옮겨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딤후 2:15)는 말씀에 따라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는 열매만 앞장서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안수집사들이 "나는 죄인입니다"(딤후 1:15)의 믿음의 고백 아래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사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답력을 얻노라"(딤후 3:13). 아멘.

하연진(안수집사, 집사장)



“오늘 다윗의 동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눅 2:11)



선물을 받을 수 있어서 좋고, 예수님이 태어나서서 좋아요. 장예은 (유치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니까 좋아요.
또 예수님 탄생일을 찬양으로 즐겁게 보낼 수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크리스마스에선 풍물을 넘어서 만인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니까 좋아요.
양애원 (고등부)

예수님이 오셔서 좋고, 예수님 생일이니까 좋아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게 해주셔서 좋아요. 노윤 (유치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어서,
성탄절에 더 많이 찬양할 수 있어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께 감사드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김정옥 (중등부)

가족들이랑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좋고, 놀 수 있기 때문에 좋아요.
안재령 (초등1부)

평소에 못 만났던 친척들과 만날 수 있어서 좋고, 크리스마스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기념할 수 있어서 좋아요. 조규연 (초등2부)

학교랑 학원을 안 가서 좋아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찬양을 크게 부를 수 있어서 좋아요.
김미연 (초등2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날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수밖에 없지 않을까? 송성배 (대학부)

날 구원하기 위해 어떻게 오신 자기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어서, 예수님께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어서 좋아요. 날 향한, 온 세상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아요. 김진희 (대학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고,
주 안에서 주님 오신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이동덕 (청년부)

보혈로 날마다, 돌이켜 주께 가까이

올해는 힘이 많이 많았던 만큼 주님의 큰 위로와 긍휼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다. 사람들은 저마다 고민이 다르다. 나의 가장 큰 고민은 ‘두려움’이었다. 끝없는 두려움부터 시작해서 정말 다윈 하지도 않은 두려움이 내 삶을 덮고 있었다. 처음 주님을 믿고 생긴, 종종 찾아오는 가장 큰 두려움은 ‘주님이 나를 떠나시면 어찌?’ 하는 구원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였다.

하지만 주님은 구원의 주님을 알게 하신 그 날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쉽지 않으나 그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일하셨고, 그 구원의 사역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장애가 있는 자들을 찾아가 만나 주시고 그들의 부족함을 다 아시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사랑의 예수님,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그 병을 능히 고치신 최고의 의사, 살면서 나에게겐 영원한 장애가 늘 생겼고 언제나 예수님은 그런 나의 최고의 의사가 되어 주셨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말씀에 “네, 꼭 낫게 해 주세요!”라며 어린 아이처럼 간절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내 삶의 곳곳 어디에서든 나타나셔서 힘든 마음을 해결해 주시는, 즉 말씀으로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늘 살아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 영어가 무엇인지도 몰랐던 유치원 시절 한글로 적은 영어 가사를 보고 들으며 노래를 불렀듯, 말씀을 배우기 시작한 아무 것도 모를 그 때에도 입술로 고백하게 하신 그 고백들을 이제는 조금 더 배우고 알고 감화된 마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할 뿐이다. 나의 미나홀과 때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보혈로 날마다~ 돌이켜 주께 가까이’

전수진(청년1부)

감사의 제물, 예수 십자가!

한국 역사상 최대의 경쟁률과 최고의 재수생으로 구성되었던 이번 수능, 안타깝게도 이번 년도, 난 그 수능이란 무대 속 주인공이었다. 많은 수험생들이 그랬듯, 나 역시 공부를 하면서도 늘 힘들어했었다. 여러 사람들의 기대와 걱정이 부담스러웠고, '벌써 고3이라니'라며 아무 생각 없이 흘러보낸 시간들을 매우 후회했다. 여기까지는 학교 친구들과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과 나는, 그들도 명백히 알듯 확실히 다른 것이 있었다. 내게는 주가 주신 평안이 있다는 것이다. 모두가 아프게 있을 때도 내게는 시가인 사춘기를 나 또한 겪었다. 주님게선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시기를 꽤나 일찍 주셨고, 시련 속에서 주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주 없이 살 수 없네>를 진정으로 찬송하게 하셨다. 그리고 난 고3이 되었다.

많은 친구들이 불안해하고 좌절할 때마다 주님게선 내 어깨를 부둥켜안으시곤, 주님이라는 놀라운 큰 집이 있으니 세상 것이 힘들다고 너무 좌절하지 말라 말씀하셨다. 주를 의지하게 하신 그 시기의 훈련이 주가 주시는 평안을 맛보게 한 것이다. 물론 몸은 너무나 힘들었다. 물리치료도 받고, 하루 종일 끔찍한 통증도 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음성이 내 영을 치유하셨다. 힘들고 지쳐 쓰러질 때마다 주님게서는 가족과 친구, 선생님을 통해서 주님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해 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날 붙잡아주었다. 주님의 그 크신 품 안에서 난 그 누구보다 자신 있게 평안 속에서 수능을 준비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수험생 시절, 주께 가장 감사드렸던 것은 주의 평안 이전에 예수님을 특별히 바라보게 하신 점이었다. 늘 좌악으로 가득찬 어린 나이에 늘 주님께 인간적인 것을 구하고, 또 그로 인해 좌절도 했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세상적 가치를 주님께 구하는 나약한 죄인인 것이다. 하지만, 올해 주님게선 감사함의 제목을 세상의 것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로 정해 주셨다. 주께선 세상의 모든 풍파도 물론 너

무나 힘든 것이지만, 예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얼마나 아프고 슬픈 것인지 몸소 알게 해주었다. 또한 어느 해보다 올해 더 찬양하게 해 주셨고, 더 예배드리게 해 주셨으며, 더 기도를 하게 해 주셨고, 더 말씀을 찾게 해 주셨다.

한 번은, 너무 몸이 힘들어 주님의 말씀을 찾지 못하였다. 그때 너무나 감사하게도 한 친구가 '성경일독을 하지 않겠나?' 제안했고, 당시 '곧 수능인데 시간이 없어'라고 생각한 마음과 달리 주님게선 성경말씀을 읽게 해 주셨다. 그 말씀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도 나와 같은 실수를 하고, 나와 같은 죄인임을 보여 주시며,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또 주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말씀을 통해 보여 주셨다. 그 친구와 함께 시작한 성경일독은 수능 전에도, 또 발표를 기다리는 지금도 내게 너무나 큰 위로와 감사가 되고 있다. 고3이란 힘든 시기에 주님이 보여 주신 많은 것들은 내게 큰 위로가 되었다. 수능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으름이심을 보여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린다. 나는 주님에게 속에 있다.

오지(고등부)

공공의회를 아시나요?

지교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출석 교인 중 세례를 받은 모든 교인이 회원이 되고, 목사 청빙 및 사임안 심의 의결권, 장로파별 심의 의결권, 예산안 심의 의결권, 권사 및 안수집사파별 심의 의결권 등을 갖고 있다. 이외에도 교회의 중요한 사항은 공공의회의 의결로 결정된다. 공공의회의 의장은 당회장이 겸하며, 서기는 재직 중 한 사람이 겸한다. 공공의회의 의결은 대다수의 상임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장로파에게는 담임목사 청빙은 3분의 2의 찬성으로 가결 하여도 노회의 승인이 있어야 이루어진다. 공공의회는 매년 예산안 및 재지 명령을 위한 장기 공공의회가 조속하며, 필요에 따라 당회장의 소집으로 임시 공공의회도 소집된다.

다음 주(22일) 당회장에 후에 공공의회가 있으며, 세례를 받은 모든 출석교인 등에게도 참석바람.

십자가의 길

동방 박사들

동방 박사는 희랍어로 현자(賢者)를 뜻하는데, 이들은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기 위해 동방(아마도 페르시아나 남부 아라비아)으로부터 별을 관측하여 추적해 온 인물들(마 2:1~2)이다. 초대 교부인 터툴리안은 이들의 신분을 왕으로 판정(시 72:10)했고, 6세기 이후에는 이것이 정설처럼 되어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그들이 정성술사였던 것으로 생각한다. 이들의 수효가 셋이라는 것은 그들이 아기 예수께 드린 선물이 세 가지, 황금과 유향과 몰약(마 2:11)이라는 사실로부터 추론한 것에 불과하다.

동방 박사의 예수 경배는 흔히 잘못 알고 있고, 그러스도께서 탄생한 밤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 예수께서는 태어나신 밤에 여관(inn) 마구간의 구유에 아기로써 누워 있었으나(눅 2:7, 12, 16), 동방 박사가 방문한 곳은 집(house, 마 2:11)이고 아기도 어느 정도 자라나 아기가 되어 있었다. 더욱이 헤롯이 동방 박사들의 방문 후(마 2:16) 갓 태어난 아기들이 아니라 두 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이라고 한 것을 보아서도 이미 예수께서 어느 정도 성장한 후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동방 박사의 예수 방문이 성탄을 기점으로 해 적어도 몇 개월 이후에 발생한 일이라고 말한다.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증언교회의
한 가족이
당가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번호	성명	교육과정	교구	인도자
1401	송준하	영아부	15	김하경
1402	박상현	대학부	6	김우종
1403	김유정	대학부	6	박광식
1404	김영호	양육반	1	이흥주
1405	김광진	대학부	17	김진영
1406	정필도	고등부	2	김재현
1407	박성진	고등부	5	김재현
1408	문성수	양육반	1	
1409	노진희	양육반	1	
1410	문루이	유년부	1	
1411	문사희	유년부	1	
1412	김재현	초등2부	8	박규민
1413	김지윤	고등부	4	박충현
1414	박은호	양육반	1	
1415	최환식	양육반	1	
1416	박예준	유치부	1	
1417	박예강	영아부	1	
1418	이 진	대학부	17	김현철
1419	지민구	대학부	17	홍진호
1420	김우주	양육반	21	김정호
1421	심기선	중등부	14	이형만
1422	김민정	양육반	12	김사무엘
1423	주은정	양육반	9	황인선
1424	안인선	양육반	9	황인숙
1425	임준현	양육반	14	차준영
1426	김미경	고등부	11	임소정
1427	김희정	양육반	8	김연영
1428	최은정	양육반	1	이신자
1429	한세연	고등부	12	박우름
1430	안인영	양육반	18	김정옥
1431	김정필	중등부	20	배성호
1432	서재수	양육반	7	김진욱
1433	박만수	양육반	1	심지석
1434	조영민	양육반	7	김하영
1435	조아라	양육반	2	
1436	김정민	양육반	2	한민교
1437	진홍식	양육반	2	
1438	문두영	양육반	17	김근아
1439	정옥주	소망부	17	조영희
1440	심종권	양육반	20	구재현
1441	유인정	양육반	21	조인선
1442	나종문	양육반	12	이희식
1443	조찬경	양육반	12	최문실
1444	윤미선	양육반	5	홍준배
1445	조재용	양육반	17	박진욱
1446	강정옥	양육반	15	이화자
1447	최현수	양육반	15	이화자
1448	최문숙	양육반	1	김근아
1449	서주희	양육반	7	

